

정부, 유망 서비스산업 7개 분야 육성

광주 ‘차이나 프렌들리’ 탄력 전남 ‘복합리조트 설립’ 활기

정부가 12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 7개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둘러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자·공공투자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지역 정책 및 산업체제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 수혜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번 정부 조치로 전남에는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경도리조트 내 콘도 중국 투자자 분양, 지리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 목포·구례 관광특구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 정부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민선 6기들이 추진중인 ‘중국과 친해지기(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탄력받나=정부는 이날 중국 관광객 유치와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가지 모두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정책을 활용한 ‘맞춤형 시책’을 선도적으로 개발·제안하고, 서울시와 상생 연계를 통해 광주를 제2의 한류도시로 선점하는 전략 등을 서둘러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특히 U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가수 수지 등 수많은 한류 연예인을 배출한 지역으로, 이미 한류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기반이 확보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높은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광주지역의 안과와 성형외과 등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합리조트, 전남에 들어서나=현재 인천 송도·제주에서 4곳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최근 이낙연 지사가 직접 세계적인 카지노 리조트 회사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하 MGM 리조트) 윌리엄 스캇 CEO를 만나 6곳의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MGM 리조트 측은 오는 9월말까지 기초조사를 마칠것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투자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다. 라스베이거스의 대표적인 호텔·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MGM 리조트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간 규제 차이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2억 달러 규모를 투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의료병원 및 간호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자원개발업체 비즈포스트(Bizpost)와의 협약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 지역에만 허용됐던 외국인 1인 분양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여수 경도리조트에 대한 중국인 투자도 잇따를 것으로 전남개발공사는 추정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논쟁 다시 불붙나=정부는 우선 강원도 양양군과 남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구례·남원·산청·함양 등 4곳의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다. 케이블카가 지리산에만 집중된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지난 2012년 4곳의 지자체에 ‘자체 정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뒤늦게 설치될 경우 이들 지자체의 반발과 치열한 설치 경쟁이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들,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엄마의 눈물



12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102보충대에서 아들이 임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102보충대를 통해 입영한 장정은 1290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또, 병사 2명 자살...국민들 ‘상심증후군’

광주출신 포함 28사 관심사병

휴가 나와 서울서 함께 목 매

경기도 광주서도 일병 총기사랑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병사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한 병사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군은 결국 두 사람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병사는 ‘힘들다’는 메모를 남겨 병영 생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군부대와 경찰,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밤 10시 25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이 같은 중대의 B(21) 상병과 함께 천장에 매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숨진 곳은 A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

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B상병은 14일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과 6일 각각 휴가를 나왔다.

서울이 집인 A상병은 B급, 광주광역시 가 집인 B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시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으며, B 상병은 작년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특히 B상병은 작년 10월 부

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됐다. 광주에서 올라간 B군의 유족들은 시신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 장례 절차 등을 군 헌병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있는 제3군사령부 직할부대 사격장에서 공병단 소속 윤모(20) 일병이 사격 훈련 도중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세월호 여파’ 소비심리도 침몰 광주, 2분기 소비 10.9%↓ 전국 최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난 2분기(4~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 침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를 기준으로 1년만에 광주는 10.9%가 줄고 전남도 4.7%가 빠지는 등 소비 감소세가 뚜렷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9.5%)와 서울(1.8%)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올해 2분기 소비가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광주와 충북(-9.3%)은 신발·가방, 의복을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줄었다. 전남

과 전북(-5.6%), 울산(-4.8%) 등에서도 소비 부진이 뚜렷했다. 전국 평균으로는 소비가 작년 동기보다 0.6% 줄었다.

객단가가 높은 백화점판매 역시 광주(-14.8%), 대구(-8.6%), 울산(-8.4%) 등 집계 대상 지역 10곳 모두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

다행인 점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 늘었다는 것이다. 광주(5.2%), 경기(4.1%), 충북(3.9%) 등 13개 시·도는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의 호조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남·전북(-0.6%)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농업어업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D-1

최창무 대주교 인터뷰 ▶2면

컬처 & 필름

여수출신 뮤지컬연출가 장유정 ▶17면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상설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차왕인 프레스 연비 및 동력 • C 200 1,991cc, 1,50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0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8.0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